광주불교계 불기 2567 봉축행사 본격 시동

'2023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개최
4월 28일 5.18민주광장 봉축탑 점등
5월 20일 본행사 어울림마당 등 예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 18일 광주불교회관에서 '2023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를 개최했다.

광주불교계의 불기 2567년 봉축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지난 2월 18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2023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를 개최하고, 2023년 봉축행사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강습회는 신희흥(전주교육대 외래교수) 강사의 지도로 광주지역 사찰 연희단과 율동 담당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율동, 3개 등단 율동강습을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광주불교연합회 행사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율동강습회를 진행한다. 각 사찰별로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올해 봉축행사가 다시 신명나는 문화의 큰 잔치가 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오늘 율동강습회를 진행하고, 각 사찰별로 율동강습회를 진행하고 총 30여 회의 율동강습회를 진행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율동강습회 취지를 말했다.

올해 어울림마당은 △1등단(감로사~불교환경,포교사단)에 '연등회는 밝은 별', △2등단(반야선원~지장암) '함께 가요 부처님 나라', △3등단(천룡사~흥룡사, 정광학원) '연꽃등 밝히는 날', △전체율동 '오늘은 좋은날'로 진행하며, △어린이율동 '꼭두가시등', △청소년율동 '밝히세', △청년율동 '우린 꽃이다'가 참여한다. 해당 곡목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4월 28일 5.18민주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일 송정역, 5월 4일 광주역, 5월 9일 운천저수지, 5월 11일 광주공원 등에서 봉축탑 점등이 예정되어 있다.

본행사는 5월 20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1만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어울림마당,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외에도 전통등전시회가 5월 11~28일까지 광주천에서 작은음악회와 함께 열린다.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행사도 눈에 띈다. 제5회 광주불교문화사진전시회, 빛고을관등회 학술세미나,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10회 빛고을관등회 불교단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전한다. 이외에도 봉축행사 참여사찰 홍보영상도 제작된다.

자비명상 혜진 스님, 배식봉사로 취임식

2월 22일, 천안 서부역 급식소서
6대 회장 취임…노숙자에 선물도



수행공동체 자비명상 총동문회 제6대 회장 혜진 스님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취임식을 대신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자비명상 총동문회(회장 혜진)는 2월 22일 천안 서부역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되새겼다.

배식봉사는 제6대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마련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 이날 신임 회장 혜진 스님을 비롯한 총동문회 회원스님들은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들에게 전할 따뜻한 도시락 200여 개를 직접 포장했다. 이뿐 아니라 단주와 수건, 요구르트, 과일,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도 도시락과 함께 전달했다.

'힐링멘토' 마가 스님이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자비명상은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 자비명상 지도자 교육을 받은 출가 수행자들로 구성된 수행공동체다.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모였으며 서울 영등포 쪽방촌 봉사와 3년 결사 수행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식봉사 전 마련된 간소한 취임법회에서 회장 혜진 스님은 "자비명상 제자들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빛이 돼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비명상 제6대 집행부는 오직 부처님 법을 따르며 동체대비 마음으로 자비명상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은 "가사를 벗고 체면과 형식, 권위를 내려놓고, 봉사 조끼를 입 고 남은 삶을 봉사와 나눔으로 회향하는 공동체를 희망한다"면서 "이 순간, 이타행이야말로 최고의 복짓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정법사부설 대자유치원 제96회 졸업식

일제때 민족의식 고취위해 개원
81명 졸업, 총 7317명 배출해



마산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사장 광우스님. 원장 박선영)은 2월 18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제96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81명의 어린이가 졸업했다.

대자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인 1927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원한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 부설 유치원이다.

졸업식에는 대자유치원 이사장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송정 스님, 박선영 유치원장, 정선정 정법사 신도회장, 조경희 정법사 다도고문, 대자유치원어린이 및 가족과 불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정법사 111주년을 맞아 96회 대자유치원 졸업식을 하게 됐다. 지난 시간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이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축하하는 날"이라며 "아이들을 보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졸업하는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박선영 유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 눈물짓던 대자동이들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무척 대견스럽다"며 "문자 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보다 자연스럽고 생명력 있는 놀이를 통해 학습과 발달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을 다시금 상기하며 늘 그래왔듯이 어린이들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이날 졸업하는 81명의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하며 졸업을 축하했다. 유치원에 취원 중인 어린이들은 송사를 합송하며 언제나 친구처럼 놀아주던 언니, 오빠들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졸업하는 어린이들도 답사를 통해 정든 유치원과 선생님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가득 담긴 답사를 합송했다. 이어진 1인 1상 시상식에서는 졸업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튼튼건강상, 알찬생각상, 친구사랑상, 아름다운 표현상, 알쏭달쏭 탐구상을 수상했다. 또 3명의 자녀가 모두 대자유치원을 졸업하는 3가족에게 특별상으로 지구본이 전달했다.

현재까지 총 73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자유치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민족교육 도량으로서 1927년 4월 마산사립배달 유치원으로 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보림사,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



급격히 늘어나는 불자들의 노령화와 산중사찰의 법회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님과 불자들이 나섰다.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는 2월 20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찾아가는 초하루' 행사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사찰 아랫마을인 보림리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종교가 다른 어르신들을 배려해 종교적인 행사는 배제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고 내장사 합창단 조정순 불자의 지도로 어르신들과 신도들이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 작은 선물도 전달하며 절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종진 스님은 "보림사는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 연세가 많은 어르신 등 노약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찰"이라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 절에 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는 초하루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다리가 아파 절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 내가 찾아 가겠다. 종교 행사 같은 건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건강하시라고 밥 한 끼 대접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보림사는 음력 정월과 초파일이 들어있는 4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초하루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 '찾아가는 초하루' 행사를 열 예정이다.

기존의 신도들을 위해서는 초하루 법회 대신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신도회 정기법회, 둘째 토요일에는 거사불자회,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재가불자들의 명상수행을 위해 열린선방을 열어 젊고 활기 넘치는 사찰로 변화할 예정이다.

유명숙 보림사 신도회장은 "보림사 길이 험해서 스님께서 대중을 찾아가자고 하셔서 신도회 회원들과 음식준비해서 오게 됐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공양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 흡족하고, 스님이 좋은 생각을 내신 것 같아 꾸준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재 보림리 이장은 "스님과 불자들이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주셔 감사하다"며 "마을의 보림사와 마을이 함께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산자비선원 법상 스님, 100인 대상 수상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서



창원 수산자비선원 법상 스님이 2월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종교 · 언론 · 사회봉사 · 효행부문 대한민국 불교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2023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 · 사회 · 문화 · 예술 · 과학 ·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법상스님은 종교 · 언론 · 사회봉사 · 효행부문에서 수상했다.

순수 민간단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상스님은 창원지역에서 무료급식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나눔과 복지의 길을 묵묵히 이어왔다. 전문적인 복지 활동을 위해 법인을 창단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 자비요양병원을 설립했으며, 어르신 요양시설인 자비마을과 양 · 한방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노인의료복지뿐 아니라 스님들의 노후복지까지 책임지는 등 자비사상을 실천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전주교도소에 나눔

백설기 · 두유 1200명 분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전주교도소교정위원회 명예회장, 마이산 탑사 주지)이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사랑의 백설기와 두유 1200명 분을 전달했다.

2월 21일 전주교도소(소장 박경선) 본관 앞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 전주교도고불교반위원장 현진 스님(천지사 주지), 전주 소년원 어머니회 김도은 회장, 황동현 소년원협의회 명예 회장, 소년원협의회 어머니회 정해자 회장, 전주교도소 교정 봉사단 박성균 단장, 박교상, 김동우 교정위원, 전북문화관광 연구소 남상준 교수, 붓다복지관 이재현 봉사단장 등 교정위원과 박경선 전주교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수용자들에게 전달된 백설기와 두유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참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진성 스님은 "저는 여러 봉사자들과 불자들의 정성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여러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수용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교도소 박경선 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활동이 표시도 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활동이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교도소내의 수용질서도 중요하지만 종교단체의 교정교화활동이 수용자들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새로 부임한 박경선 소장에게 마이산과 탑사 기념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식 봉행

18일 전주 화엄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일제히 졸업식을 봉행했다. 2월 18일에는 전주 화엄불교대학과 고창 선운사불교대학, 19일에는 전북불교대학이 졸업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전주지역의 최고의 신도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금산사 주지)은 2월 18일 34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봉행된 이날 졸업식에서는 2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학장 일원 스님은 졸업생 대표 이동현 불자에게 졸업증서와 조계종 신도품계인 '부동' 품계증을 수여했다.

일원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이웃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래의 전도사로 거듭나게 됐다"며 "황량한 가시밭길이라도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면 마다하지 말고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선운사 불교대학(학장 경우, 선운사 주지)도 2월 18일 고창읍내 선운교육문화회관 3층 명상실 '보리수 아래'에서 제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7명의 입학생 전원이 졸업하게 됐다. 1기 입학생 중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2명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졸업하게 됐다. 학장 경우 스님은 졸업생 모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경우 스님은 졸업식사에서 "졸업식을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지난 1년의 수고로움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신심과 원력을 펼쳐나가는 불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2월 19일 제35회 불교학과, 제30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완산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30명 법사과 19명, 전법사 4명이 졸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 제9회 지방종회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종무원장 영범스님)가 2월 17일 오후 2시 대구 · 경북 교구 종무원 설법전에서 제9회 지방종회를 개최했다.

대구 · 경북교구종무원장 영범 스님과 종회의장 혜석 스님 등 종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회 지방종회에서 영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개최되는 지방종회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제15대 대구 · 경북교구 지방종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 지만, 해담, 정연, 만해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어서 종회의장 혜석 스님의 종회개회에 이어 오는 4월 18일 치러지는 제28대 총무원장 선거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지방종회는 법운, 관정, 범진, 일묘, 성혜, 보성 스님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했다.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는 종무원장 영범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한편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 종무원에서는 열린불교대에 영남범음범패과정(강주 법안스님)과 전통범음범패과정(강주 성우 스님)을 개설하여 종도 교육을 통한 교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고창 선운사 생전예수재 입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2월 19일 생전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써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는 계묘년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효담 스님의 집전으로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린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대웅보전에서 상단불공에 이어 생전예수재 의식이 봉행됐다.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 · 말사 스님들과 부안 내소사, 군산 관음사 신도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써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한 선운사 생전예수재는 매주 토요일마다 예수재가 봉행되며 음력 윤2월 지장재일인 4월 8일에 49일간의 생전예수재를 회향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